

2016년 11월 21일,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노인회관, 문경미 조사.  
고정아(여, 1939년생, 제주시 해안동)

**[조사자]** 남선빈 뭐파?

**[제보자]** 남선빈 아들 일곱 성제 난 사는다. 그 족은각시 사람이 어디 아무디 그 사람을 보내랜 허난 옛날은 걸어만 덩겼지. 게난 못 신 디 간 남선비 큰각시가 등땡이 밀어안내쿠덴 허멍 허연 거려밀런 죽여불언. 죽여부니까 이제 큰각신 죽어부난 나가 큰각시 일곱 성제 난 어멍이노랜 허연.

**[조사자]** 거짓말로예.

**[제보자]** 거짓말로 허연. 어멍이노랜 허연. 남선비가 그 하르방은 몰란.

“아야 배 아프다. 배 아프다. 아야 배야 돌돌 아야 배야 돌돌.”

헌 건 뭇이나 허민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민 나가 그 배를 좋으켄 허난. 아들 일곱 성제 경 허난 그 하르방은 칼을 굴았이난 즈꿋데 할망이 그땐 성냥이 엇어낫주기.

게난 불 담으레 왓단. 하르방은

“이건 뭇허젠 굴았우과?”

허난 우리 애기어멍 막 배 아판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으민 좋켄 허난 칼을 7노랜 허난. 한 배에 돌씩 시 번만 나민 일곱 성제주기. 경 행 이젠 허난. 그 하르방은 폭 고정 들언. 이제 그 칼을 굴았이난 그 불 담으레 온 사름은 그 불을 안 담고 그냥 나간. 그 아들들 좇안. 하나신더레

“형들이영 아시들이영 몬딱 좇앙 돌아나 불라.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어서 좋켄 허난 아방 칼 굴았저.”

허난 족은아신지 성인지 하나 딱 놔 된 요섯 성젠 이젠 돌아나 부나네. 사람은 말 들어네.

“무시거 험우과?”

“저 어멍 아판에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면 좋겐 허여네 골았저.” 허나네

“아버지 손으로 허젠 허문 뭐허고 나가 강 헤영 오건 아버지가 멕입서.”

경허난 남선비엔 헌 사람은 그 아덜을 주엇주기, 주난. 산에 강 산토세기 일곱 개 애 내영 왓주기.

**[조사자]** 무신거 일곱 개?

**[제보자]** 산토세기 일곱 개. 일곱 개 애 내영와네

“이거 애 내영 왓이메 아버지 허영, 어머니 낫거든 허고 아니 낫거든 나 아버지 손으로 허영 죽영 애 내영 멕입서.”

“아이고 고맙다.”

헝 허나네 그 아들은 7만히 곱앙 본 거라. 곱앙 보난 사람 걸 먹어저게. 툭툭 불량 위알더레 물어부나네 그게 그냥 먹는 척만 헝. 허나네. 그 아덜은 말째 문을 활짝 올안

“어머니 영 오래 누민 내도 나고 나가 방 치우쿠다, 나가 방 치우쿠다.”

“늬은이 눕는 방 칩지 안 해도 뻐다뻐다.” 허난.

확 헤여네 문딱 시난 아덜 일곱 성제 살안 나오나네 살았구나. 나완 화들짝 나와네. 죽엇인지 살았인지 몰라. 심방 말미에 나오는 거라. 거 돛도구리여.

**[조사자]** 끝말이 어떻 된지는 모르고?

**[제보자]** 그거 잊어불영 몰라. 할망이 심겨사 불어삿인지 도망사 갓인지 거 몰르주게.

**[조사자]** 그 할망은 무슨 디 모시는 신이 뻐일 거 아니?

**[제보자]** 그건 경허난 돛도구리여. 통시에 이런 디 칙간 영 앓안 똥 오즘 눕는 팡, 팡이여 경 허연. 동티 그걸로 나타나는 거라. 그 할망 죽언.

- 핵심어 : 남선비, 애, 산토세기, 아덜, 할망, 일곱 성제, 족은각시, 큰각시